

## 이중오 선배님을 보내면서

이중오 선배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Resident 수련 받으러 Buffalo, NY 에 가서 동창회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또 여러 번 그의 집에서 천주교 모임이 있어 참석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라북도 이리가 낳은 천재였고 다재 다능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매우 활동적이고 쾌활하고 모든 방면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는 버팔로에서 유능한 정신과 의사이며 버팔로 뉴욕 주립대학 교수로 활약했고 의학 이외에도 문학 음악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가 문인으로 처음 등단한 것은 1999 년 6 월호 월간중앙에 어떤 책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면서 한국문단에 등단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베스트 셀러 대열에 올랐던 한 일본인의 책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 이란 책에 대한 비판글을 월간중앙에 올리면서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문단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쓴 책이 "이광수를 위한 변명" 이었습니다. 그는 친일파 문인으로 알려진 춘원 이광수를 너무 좋아해 모든 그의 모든 책들을 통독, 분석했고 이광수의 자식 손주들을 인터뷰하면서 결국 "이광수를 위한 변명" 이라는 304 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을 2000 년 1 월에 출간하였습니다. 버팔로에서 출판기념식을 해서 나도 참석해서 저자의 싸인을 받은 그 책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또 철학을 좋아하고 더 공부하기 위해 버팔로 뉴욕 주립대학에서 철학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고 노래도 잘 불러서 동창회 연말 파티에는 항상 가곡을 불렀습니다. 골프도 무척 즐겼는데 장타는 아니지만 아주 정확하게 잘 쳐서 은퇴하고는 바로 Orlando, Florida 로 이주하여 이곳 버지니아로 이사 올 때까지 약 십년간 이선배님 부부는 매일 골프를 치면서 은퇴생활을 즐기곤 했습니다. 또 마사를 좋아해서 저와 함께 Buffalo 에서 그리고 이곳 버지니아에서 4 인조 마작게임을 하면서 친교와 치매방지 두뇌운동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버팔로에서 추운 겨울 눈이 무척 많이 온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마사를 하자고 해서 눈이 많이 쌓인 Drive way 를 치우고 달려갔더니 성질이 급한 이 선배님이 빨리 오지 안왔다고 성화를 내던 일이 새삼 기억이 납니다.

이곳 버지니아로 이사온 후 노후 지병이 있어 육신이 약해져서 친교와 사교활동등 대외활동이 줄어들었고, 부인과 함께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를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할 수 있는 독서와 computer TV 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마사를 즐기셨습니다. 말년에는 마작모임도 중지되고 외출도 줄어들었지만 가끔 선배님 부부, 같이 하던 마작 친구 부부, 같은 전북 이리 출신으로 고등학교 와 서울의대 직속 후배인 68 년 동기 부부와 함께 8 명이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환담하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외출하기 힘든 말년에는 집에서 식사도 잘못하고 지내셨지만 아내가 여러 번 마련해서 주신 일본식 소바를 좋아하시고

기운을 차렸다는 말, 그리고 다니던 정하상 성당의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으로부터 병자성사를 받고 위로와 평안을 찾았다는 말을 전해 들어 저희도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몇 년간 지병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이제 많은 추억과 사랑을 남기고 떠나 저 세상 하느님 품안에서 심신이 편안하게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후배 주광국 (68 년) 드림